

현실 다루기 지역순환 사회운동

지역순환 사회

| 차흥도 | 지금여기 편집부 |

충북 음성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는 지역순환 사회운동에서 지역통화를 도입해 적용하려 하고 있어 소개합니다(편집자 주).



사회적 공통자본과 금융의 공공성 및 지역병행통화 운동과 그 제도화 및 사회보장

- 경계 없는 세계화시대에 그 방어막으로서 확산되고 있는 지역통화 -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와 엔트로피

1) 지역자원 : ‘한국은 자원빈국이다’라고 할 때, 자원은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자원과 다양한 지하 광물자원이다. 그러나 농산물이나 목재 및 물 그리고 산자수려山紫秀麗한 경관은 자원이 아닌가? 문화와 지식은 자원이 아닌가? 이러한 것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살아있는 자연을 자원으로 한 것이다.

녹색혁명형 농업의 도입으로 화학비료와 농약, 제 제에 의해, 풍요로웠던 표층토양을 황폐화시키고 난 후,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 먹을거리를 수입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 울창했던 삼림을 황폐화시킨 후 외국에서 목재를 수입할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는 마시는 물까지 수입하고 있지 않는가? 지역의 자연과 경관을 잘 알아서 조화롭게 가꾸어 온 지역 공동체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공공사업을 강행할 필요성이 얼마나 높았는가?

지하에서 잠자는 광물자원과는 달리 살아 있는 자연(자원)은 생태계 그 자체이며 갱신가능한 것이다.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살아 있는 자연의 일부를 이용하여 획득하고 있다. 생태계의 갱신능력을 초과하지 않으면 인간생활은 지속가능성을 보장받는다. 현재의 자연자원의 이용방법은 생태계의 운영방향(법)과 합치하고 있지 않다. 죽은 자연자원인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공업의 원리를 살아 있는 자연자원에 적용하여 자연을 죽은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생태계 운

영법칙과 일치한 자연자원의 이용방법의 복원·재생, 즉 자연순환과 그 다양성의 복원 및 상호의존적 관계성의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공업의 원리에 따라서 자연자원을 이용하여 생산된 결과물을 사회적으로 순환시키는 것은 그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보장되기가 어렵다고 하겠다. 사회·경제적 순환의 토대가 되는 자연순환의 복원·재생 없이는 진정한 지역 내의 물질순환은 어렵다.

2) 지역 경제

‘지역’경제 또는 ‘지방’경제를 논의하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째는 국가(나아가 세계) 또는 중앙정부를 기본구조로 하는 서양학문에 토대를 둔 종래의 대부분의 관점이다. 예컨대, ‘국가 또는 국토의 목표에 이바지하는 개발정책’과 연동하는 ‘지역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설계, 평가하는 경제학이 대부분이다. 주로 논의되는 분과(학)는 재정(학)이다. 산업이 논의되는 경우도 자본이 집적되어 있는 (대)도시에 한정되며, 지방도시에서도 ‘마을 만들기’ 수준 또는 지역 활성화 차원에 머무르고 있으며, 소위 한계집락(限界集落)이라고 할 수 있는 과소지역(過疎地域)에 대해서는 정책적 제언이 거의 없고, 학자들의 논의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지방일수록 ‘정치가 곧 지역 산업부흥’이라는 구도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둘째는 생활자와 그 주변의 생활권을 대상으로 하고, 역사적 지역밀착적 자연환경, 즉 지역주민의 공유자원의 관리와 분배(Communs) 및 가족 공동체(가문, 가계)를 기본적 구조로 하고 있는 관점이다. 일본의 경우는 ‘생명계의 경제학’을 필두로 지역주의를 총칭하는 소위 ‘광의의 경제학’에서는 지역경제를 전자의 관점인 ‘국가의 하청’으로서가 아니

라 지역의 경제적 자율, 나아가 생활 그 자체의 자율, 지역자립의 방법을 탐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의 운동가와 연구자들은 (농촌)지역사회의 유지·지속가능성과 지구·지역의 생태, 환경의 보전을 위해 지역의 경제적 자율·자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이 적극적으로 재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시장원리에 의하지 않는 비영리단체가 지역사회에 대하여 무상 서비스를 하는 운동, 자연환경권이라는 공통제를 재인식하는 운동 또는 삼림 등 자연환경보전이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를 강화시키는 운동 혹은 장소와 시간과 교환가치를 한정된 지역통화의 확산운동, 개발도상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등에 대한 긍정적 평가 등이다.

‘지역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농업’의 관점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 농업도 여전히 <녹색혁명형 농업>을 고수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역농업’의 주장자들이 ‘지역’을 강조하는 경우도, 그저 형식적 측면에서 행정구역이나 생활권이나 수계중심이나는 등 그 개념의 애매모호성을 강조, 부각시키는 것에 머무르고 있다.

최근에는 양자를 결합하려는 시도도 지방재정 연구자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동경대학의 진노 나오히코(神野直彦) 교수는 ‘지방이 변화·발전하지 않게 된 것은 브레튼 우즈 체제에 의한 복지국가 체제가 붕괴하여 글로벌리즘이 만연하고, 국가 국민경제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상실되어서 대부분의 사회기능이 시장화되고 있는 데 있다. 지방도시의 산업은 투자효율의 악화 때문에 시장성을 상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은 대도시로 집중하고, 저부가가치 산업은 동아시아로 이전하게 되어서, 대부분의 지방도시는 산업 공동화가 현저해졌다’라고 지적한다. 그래서 ‘지방의 재생은 일본형인 생활중시 스타일을 지향하는 재정,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면서, 유럽형 지역재생 사례를 들고 있다. 이러

한 시도는 국가정책에 대한 제안을 한 점에서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역시 지역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점, 지역에 뿌리를 내린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하다.¹⁾

최근의 다른 한 가지 시도는, 미쓰비시 종합연구소 같은 종합 컨설팅 회사의 좋은 시장이 되고 있는 것으로, 시장경제에 대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시장주의적 방법론을 토대로 하고 있는 ‘지역경영론’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마케팅론은 ‘산업을 공동화한 지방에서 지자체가 지역의 대기업 역할을 수행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도입한 지역경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한다.

3) 공업의 원리는 자본의 논리, 그리고 농촌지역

자본의 논리란 자기증식하는 화폐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의 세계를 대표하고 있다. 그런 세계에서는 인격이나 권위 그리고 학문적 실력도 소유·지배하고 있는 화폐량의 대소에 의해 좌우된다.

화폐가 자기증식하는 근거는 화폐 그 자체가 상품으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즉, 화폐는 대부 가능한 상품이다. 상품을 빌리면, 임대료를 지불하는 것과 똑같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지불한다. 그래서 화폐는 이자를 낳고 그것에 의해 자기증식 한다.

공업의 원리란 공장에서 공산품을 생산하는 원리이며, 공업생산은 기계 시스템에 의한 상품의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기계 시스템은 광물 자원의 대량소비를 전제로 하고 있다. 자본은 이윤을 낳고 있는데, 이윤은 이자나 지대를 지불한 후 남는 것이어야 한다. 이윤의 모두를 이자로 지불하여 버린다면 이득은 볼 수 없어진다.

1) 神野直彦, 地域再生の經濟學—豊かさを問い直す, 中公新書, 2002, 2004년 9판

시장에서는 격렬한 경쟁이 전개되는데 특히 판로확대 경쟁에 의해 시장이 팽창하면 어떤 시점에서는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우선 한정된 파이를 서로 탈취하려고 하든가, 새로운 시장창출을 위해 개발경쟁을 하게 된다. 그리하면 광물자원의 대량소비는 제지 없이 확대를 계속하게 된다. 예컨대 탈공업화 시대와 새로운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조업에서 정보산업으로 이행되었지만, 정보생산량의 증대와 더불어 1차 에너지의 사용량도 증대함과 동시에 광물자원의 대량소비도 계속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산업은 탈공업이 아니라 고도 공업화임이 밝혀졌다.

결국 공업의 논리는 자본의 논리와 하나가 되어 광물자원에 유래하는 다양한 상품을 세계 속에 살포하고 있으며, 공업이나 정보산업은 물론 농업이나 임업 등 모든 산업분야에서 공업제품의 사용을 강제함으로써 공업원리를 관철시키고 있다. 농업에서 화학비료나 농약과 제제가 사용되는 것은 그것이 최종 소비자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화학비료나 농약과 제제의 대량 소비시장이 되도록 농업이 자본의 논리(요구)에 따라 국가정책으로 재편성되었기 때문이다. 삼림이 황폐화된 것은 기계 시스템을 잘 사용할 수 없는 험한 산악지대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성이라는 미명하에 바다갯벌이 간척된다든지, 산악지역의 산촌이 댐 저수지 밑으로 수몰되는 것은 지역의 자연과 더불어 살아온 주민의 문화적 독자성을 유린하는 것이다.

화폐는 이자를 낳으므로, 그것 때문에 개개의 기업에게 이윤추구라고 하는 성장 편견bias을 만들고 있다. 자본의 논리를 그대로 발휘시켜서 공업원리의 불완전한 곳을 고치려고 하여도 그것은 대중요법 밖에 되지 않는다. 문제는, 공업의 원리에서 자본의 논리를 훌륭하게 분리시키는가 하는 점이다.

칼 폴라니는 『대전환』(1944년)에서 자기조정적 시장 시스템은 허구이며, 이 허구에 입각한 시장경제는 종언을 맞이하였다고 했다. 제2차 대전 후의 냉전구조 속에서, 각 국가는 중앙정부에 의한 경제통제 방식을 개발하였다. 1989년 소비에트 연방형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자유방임의 시장경제는 불사조처럼 소생하였고, 허구에 불과했던 자기조정적 시장경제 시스템은 경제학 교과서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규제완화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는 선봉에 서는 자는 이것을 공부했던 학생들이고 그리하여 기계 시스템(공업원리)은 또 다시 자본의 논리와 손을 맞잡게 되었다.

자기조정적 시장 시스템이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와 더불어 맹위를 떨침에 따라 현실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왜곡(예컨대 구조조정과 산간벽지 과소지역에 대한 포기 등)이 발생하게 되자 이에 대한 사회적 자기 방위 운동으로서 새롭게 지역통화 도입 운동이 대두되었다.

지역통화 도입운동은 지역에 있어서 통화부족을 보완하는 임시변통의 대증요법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기존의 화폐개념에 대한 강한 비판을 토대로 하고 있다.

지역통화는 이자를 낳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자를 낳는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역통화 시스템의 원형은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이다. LETS는 그린 달러라는 지역통화를 사용한다. 그린 달러는 LETS를 이용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매개하는 수단이다. 기존의 화폐와는 달리 그린 달러는 LETS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행할 수 있다. LETS를 이용하는 사람은 상대방으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수취할 때마다 그린 달러를 발행하고 상대방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린 달러를 수취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린 달러의 유통근거가 LETS 이용자의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이나 노동력 및 일손에 있다는 점이다. 추상적으로 말하면 노동력 및 일손을 나타내는 노동시간이 그린 달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력 및 일손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린 달러를 발행할 수 있다. 물론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취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가 자신이 제공하는 노동력이나 일손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자신이 발행한 그린 달러가 회수되지 않은 채 LETS 속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신이 거래 상대방을 위해 노동력이나 일손 및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그린 달러가 회수되기 때문에 균형이 회복된다.

개인이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의 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면 어째서 화폐를 빌릴 필요가 있을까? 지역통화 시스템에는 자금수요가 없는 것이다. 수요가 없는 곳에는 시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자는 항상 제로이다. 물론 이러한 LETS형식의 지역화폐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것이므로 현실에서는 이것 말고도 다양한 형태의 지역통화가 가능하다. 대부분은 지권紙券 통화 시스템을 취하고 있으며 사무국이 발행하여 이용자에게 할당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면 소규모 관리통화 시스템으로 되어 버린다. 그린 달러 같은 래디컬한 성격은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지역통화 시스템이나 이자는 제로이다.

지역에 파묻혀진 자원의 (재)발견과 그 이용 가능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지역통화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LETS와 같은 지역통화의 근원적인 성질은 아직 충분히 이해되고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생활세계에는 자본의 논리와는 다른 생활의 기본원칙이 있고 이자를 낳지 않는 지역화폐는 그러한 생활세계의 유희유와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다.

경제성장이 자본의 논리와 공업의 원리의 결합에 의해 이루어지는 한 살아 있는 자연과 더불어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의 안전보장은 없는 것이다. 소위 지방의 설움과 고통은 살아 있는 자연이 발산하는 비명 소리이다. (Human Security)

나. 지역병행통화 : 경기침체 지역,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의 공공성으로서 지역통화와 농협금융의 역할

1) 정의 : 지역통화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내부에서 재화와 서비스의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주체 : 지역통화로 무엇을 거래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은 지역주민 자신들이다.

3) 거래대상 : 그들의 지역에 존재하는 자원을 (재)발견하는 행위는 주민들 스스로가 결단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주민에 의해 (재)발견된 자원은 첫째로 지역에서 이용되는 데 제공되기 위한 자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재)발견된 자원을 그대로 외부시장에 판매하든가 또는 (재)발견된 지역자원을 외부자본에 의한 개발에 맡기는 것은 저개발국의 자원수출이나 자원개발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다. 외부시장에서 상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외부시장에서의 상품화를 위한 경쟁에서 뒤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묻혀버린 운명에 있던 것을 지역통화에 의해 발굴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역 속에서 활용되어야 하고 지역 속에서만이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

-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역통화 자체의 형태 : 지폐권 형태, 통장형, 전자화폐형 등
- 통화발행 형태 : 개인, NPO, 자치체 등
- 거래대상 : 자원봉사 활동, 재화, 서비스 등
- 유통범위 : 인근 주위, 자치체 내부, 가상 커뮤니티 등

WTO-FTA 체제 하의 경계 없는 세계화 시대에, 지역통화는 공적 영역 또는 공공 영역 내에서 물건과 서비스의 주고받음을 매개하는 도구이다. 농촌사회의 지속가능성의 위기와 생태계 및 환경파괴가 지속되고 있는 오늘날, 지속가능한 사회가 요구되고 있는 시대에 <지역통화>가 주목받고 있다.

4) 지역통화의 기능

WTO-FTA 체제 하의 경계 없는 세계화 시대, 특히 금융의 세계화 추세에서, 아메리카 달러화나 일본의 엔화 등의 국민통화는 외환시장을 통해 다국적 투기자본에 의해 글로벌한 투기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같이 투기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 그 투기장이 된 국가의 국민경제는 국부의 해외유출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고 그 타격의 여파는 동일한 국민경제 내에서도 농촌·농업이나, 생태·환경 등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로 전가되어 버린다. 그래서 농촌지역이나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외부로부터의 충격에 대한 방어막이나 완충장치를 통해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지역통화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색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생각해 보면 어떠한가?

국민통화와는 별개의 지역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적부문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환경파괴적인 공공개발사업이 아닌 공적 개발사업에
거액의 세금을 투여하지 않아도
사회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세계화 시대에 돌입하면서 초저율의 금리시대가 장기화되면 신규투자는 활발해지기가 어렵게 되며 높은 명목소득 하에 저소비가 지속되는 저성장이 장기화된다. 정부는 고실업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의 활성화로 경기회복을 시도하지만 과거와 같은 유형의 정책으로는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 여기에 지역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통한 방식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지역통화를 통한 금융의 공공성에 대한 생각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세계화 시대, WTO-FTA 시대, 상품경제에서는 경계와 국경이 없는 시대에, 기존의 국가통화나 세계적 기축통화로 거래를 하게 되면 약소국과 낙후지역이나 조건이 불리한 지역 또는 농촌의 경제력은 그 외부로 대부분 빨려들어 간다. 그러므로 지역의 구매력을 외부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방어하여 지역에서 경제블럭을 형성하는 등 지역 내의 물질이나 서비스의 유통을 활발히 하고 지역 내의 물질 및 서비스의 순환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경제의 순환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협동조합금융의 공공성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는 없는가?

독자적인 계산단위를 도입하여 새로운 가치규범을 지역사회에 제공할 수 있다. 이런 기능을 갖는 지역통화를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가 지역 내에서 생산, 유통, 소비되고, 시장에서는 취급되지 않았던 것들도 새로운 지역자원으로 출현, 순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것으로 지역통화를 생각해 볼 수는 없는가?

5) 지역통화에 대한 이론

ㄱ. 【이론 1】 〈公的部門과 私的部門만이 아니라 共的部門을 활성화시키는 지역통화의 공공성〉

지금까지 다양한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한 정책으로서 직접규제/탄소세와 같은 환경세/오염배출권 시장/국가간 공동실시를 목표로 한 국제정치적 수단 등이 논의되어 왔다. 금융론이나 통화론의 방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을 검토한 연구는 많지 않다.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순환함으로써 경제활동의 대부분이 성립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노력이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환경과파괴적인 활동에 투하되는 자금이 있다면, 환경보전을 위한 자금의 투하 방향과 그에 대한 인센티브의 도입방향 및 지역 내의 순환을 활성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대안에 대한 연구도 집중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통화의 측면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접근과 지역 내의 물질순환에 대한 접근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우편저금은 재정투융자의 중요한 자금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런데 이 재정투융자는 상당히 환경과파괴적인 방향으로 사용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재정투융자를 폐지한 후의 우편저금을 환경통화제로 전환하는 것은 어떤가를 심각히 검토해야 한다. 예컨대 한국의 04년의 경우, 교통세 세입이 약 10조원, 그 중 63%가 도로교통 건설에 사용되는 등 환경과파괴·지역과파괴·순환과파괴에 사용되었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경제를 2가지 부문, 즉 사적 이익을 추구하

는 사적기업私的企業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간부문Private Sector과 정부
부문, 공적부문公的部門, Public Sector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
하고 있다. 이는 현실경제를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는 신고전파 경제학
의 명백한 방법론적 한계라고 하겠다.

공공과 사私만이 존재하는 세계에서는 사람은 살 수 없다. 현실의
경제 속에는 가정이나 집안 또는 문중 및 복수세대의 대가족과 지
역사회 같은 공동체 분야, 자원봉사와 같은 분야 또는 서양에서 말
하는 Commons(공유共有·공용지共用地)와 같은 분야, EU에서 말하는
Association 분야, 즉 협동조합 분야와 NPO-NGO분야 같은 공적분
야共的分野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 분야가 없으
면 경제는 웅색해진다. 신고전파 경제학에서는 이러한 분야를 자명한
전제로 취급하거나 배제해 버림으로써 국민적 합의도 없이 공공정책公
共政策 또는 공공사업公共事業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이 분야를 공격/
파괴/말살하려고 하여 왔다.

농촌파괴/지역환경 파괴/생태계 파괴/지속가능성이 모든 국가의 관
심사로 되고 있는 시대에 오히려 공적부문公的部門을 어떻게 재구축해
야 하는가 하는 점이 경제학이 추구해야 될 올바른 관점의 하나인 [사
회적 공통자본]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공적부문에 대한 금융의 공공
성, 협동조합 금융의 공공성과 동시에 이를 지역통화와 연결시키는 작
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과제다.

국가권력公的部門만이 발행/관리하는 국민통화와는 별개의 새로운
지역통화共的部門의 유통에 의해 지역 내의 물질순환형 사회의 형성과
확립을 통해 생태 및 환경보전형 지역사회의 재생 또는 지속가능한 지
역사회의 구축을 도모하는 방향이 현실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면 산림보전과 육성을 생각할 때, 국유림이든 민유림이든 장

기간의 임업불황 때문에 아름다운 숲 육성에 불가결한 노력투하가 결여된 지역이 많다. 황폐화된 산은 자연재해를 일으키기 쉽다. 소나무 잎마름병에 걸린 소나무를 자르는 사람도 없다. 임업문제가 그 범위에 머무르지 않고 어느 사이에 환경문제로 되어버리고 있다. 그러나 육림과 같은 작업은 당면한 이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없는 활동이다. 때문에 자원봉사 활동에 기대되는 부분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무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에만 의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작업이 별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 같은 측면에서는 지역통화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국경 없는 세계화 시대에는 외환시장을 통해 글로벌한 투기의 수단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 국민통화이며 이런 국민통화를 매개로 하여 농촌지역의 황폐화와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통화와는 별개의 지역통화의 발행과 유통을 법적으로 허용함으로써, 공적부문公共的部門이 새롭게 재생된다면 환경파괴적인 공공개발사업이 아닌 공적 개발사업公的開發事業에 거액의 세금을 투여하지 않아도 사회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다. <성찰이 넘치는 공공개발사업>이 되도록 할 수가 있다. 또한 지역통화에만 그 가능성을 한정하지 않더라도 스위스의 WIR²⁾처럼, 국민통화와 병행하여 광역에서 유통하는 또 하나의 병행통화를 구상하여 보는 것도 의미 있다.

나. 【이론 2】 실비오 게젤의 논리

2) 현존하는 지역통화 중 가장 오래되었다.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1934년에 바나 치면과 폴 엔츠에 의해 협동조합으로서 설립되었다. WIR는 1936년에는 스위스 은행법에 근거하여 WIR은행으로 개조되었지만, 동시에 LETS같은 방식의 거래도 행해졌다. 현재는 참가자 8만명, 연간거래 20억 달러 규모이다. 수표형의 지역통화가 중소기업 상대 거래에 이용되고 있고, WIR은행은 저리低利의 용자도 하고 있다.

게젤S. Gesell은 1862년 3월 17일, 당시엔 독일 영토였으나 제1차대전 이후는 벨기에 영토가 된 벨기에 남동부 장크트 비트St. Vith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프랑스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는 1886년 아르헨티나로 건너가 수입업으로 성공했으나 당시 아르헨티나의 경제혼란을 목격하고 올바른 경제의 모습을 구상하게 된다. 그의 연구결과의 기본구상은 아래의 서적으로 출판되었다.

게젤은 ‘화폐가치의 안정을 추구하여 화폐제도의 개혁을 제창하였다. 금/은 등에 의존하지 않는 국가화폐의 창조를 통하여 경제의 안정을 지향하는 생각은 많은 신봉자를 얻었다. 케인즈는 〈일반이론〉속에서 게젤의 업적을 상세히 언급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점에서 〈일반이론〉의 사고방식을 얻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³⁾

게젤은 1891년 『사회적 국가에 대한 가교로서 통화개혁』을 발표한다. 여기서 그는 식품이 서서히 부패하여 가고 철제품이 서서히 녹슬어 가는 것처럼, 상품은 시간과 더불어 가치를 잃어가는 것이 강조된다. 이에 대하여 상품교환의 수단으로서의 화폐만이 가치를 잃지 않는다면 경제는 훌륭하게 순환하지 않는다. 특히 금이 화폐라면 그것은 언제까지나 가치를 처음과 똑같이 가지고 있을 것이다. 내구성이 뛰어난 금과 같은 것을 화폐로 하는 경제는 철저히 비판받아야 된다고 한다. 따라서 화폐는 파손하기 쉬운 지폐로 하는 방법이 좋다고 한다. 그리고 그 지폐는 시간과 더불어 가치를 상실하여 가는 것이 확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녹슬어 가는 은행권Rostende Banknoten’을 제안한다. 이 ‘녹슬어 가는 은행권’은 1년 간 유효한 지폐에 매주 얼마씩 그것이 가치를 상실하여 가는지를 문자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3) 宇澤弘文, 1984, ‘ゲゼル, 『世界大百科事典 4』, 平凡社

이에 대하여 1906년에 출판된 『화폐, 토지개혁을 통하여 모든 노동 수익의 실현』에서는 ‘개혁화폐Reformgeld’라고 하는 스탬프 첨부 방식의 통화를 제안한다. 이 통화는 일정 기간마다 어떤 일정액의 스탬프를 소정의 장소에서 구입하여 공백에 순차적으로 첨부하여 놓지 않으면 액면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폐이다. 이는, 이 스탬프 부착 통화를 입수한 사람은 가능한 한 빠른 기회에 그것을 사용하여 버리도록 촉구하는 것이며 경제 전체로서는 화폐의 순환이 촉진되어 경제전체가 빨리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ㄷ. 【이론 3】 케인즈 이론

케인즈는 ‘고용, 화폐 및 이자의 일반이론’에서 계절의 독자적인 공헌을 2가지 들고 있다.

‘첫째, 그는 이자율과 자본의 한계효율과의 구별을 명확히하고 실물 자본의 성장률에 한계를 갖는 것은 이자율이라고 주장한다. 다음으로 그는 이자율은 순수하게 화폐적 현상이며 화폐이자율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화폐의 특이성은 다음의 사실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즉 부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화폐의 소유는 소유자에게 있어서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보관비용 밖에 들지 않으며 그리하여 보관비용을 필요로 하는 재화저장과 같은 부의 형태는 실은 화폐에 의해 설정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보수報酬를 낳는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다’.

케인즈는 다시 말한다. ‘이것으로부터 그는 유명한 “스탬프 부착” 화폐라고 하는 처방전을 쓰고 있는데 그의 명성은 주로 이것 때문에 알려지고 있으며 어빙 피셔 교수가 축복의 말을 바치는 것도 이것 때문이다. 그의 제안에 의하면 정부지폐(어떤 종류의 은행화폐의 형태 하에서도, 이 제안이 동일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는 보

힘 카드와 똑같이 사람들이 우체국에서 인지를 사서 매일 그것을 첨부하지 않으면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스탬프 요금은 적당한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그의 이론에 의하면, 그 액수는 화폐이자율(스탬프가 없는 경우)이 완전고용과 양립하는 신규투자량에 대응하는 자본의 한계효율을 초과하는 초과분과 거의 대등한 것으로 해야 한다. 스탬프 부착 화폐의 배경을 이루는 생각은 건전한 것이다'라고 결론짓는다.

케인즈의 자본의 한계효율 이론

자본의 한계효율이란, 자본투자 시의 예상수익율이다. 신규투자 검토 시, 예상할 수 있는 수익률이 이자율 보다 낮으면 투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규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경제는 불황이다. 이 경우 완전고용은 바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얼마간의 화폐를 보유하고 있어도 스탬프 율에 따라서 갖고 있는 화폐가 감가하여 간다면, 이자율에 비하여 예상 수익률이 그다지 높지 않아도 사람들은 그것을 투자로 돌리려는 인센티브가 생겨서 경제는 회복되고 완전고용에 이를 가능성은 발생한다. 케인즈는 스탬프 율의 적정수준을 처음부터 알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 스탬프 율을 상하로 변동시키는 모색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완전고용 하에서, <화폐이자율 = 자본의 한계효율 + 스탬프 율>(계절 · 케인즈 방정식)을 실현시키는 비율을 찾으면 좋다.

르. 【이론 4】 피셔I. Fisher의 이론

미국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 시의 사, 【한국농촌 적용가능】⁴⁾

i) 아메리카 판版, 스탬프 부착 지역통화를 스탬프 스크립Stamp Scrip이라고 함.(1934 a)

ii) 피셔가 뉴헤이븐 시장인 존 머피에게 보낸 1932년 9월 26일자 편지(1934 b)

뉴헤이븐 시는 4년 계획으로 유권자 1인당 일정액의 스탬프 부착 통화권을 배분한다. 1달러 스탬프 부착 통화권은 1 US달러와 등가로 한다. 물론 1달러 스탬프 통화권만이 아니라 보다 고액의 스탬프 통화권을 하여도 좋다. 단순화를 위하여, 1달러 스탬프 권을 기준으로 말한다. 이 통화권에는 26개의 스탬프 부착공간을 인쇄한다. 이 권은 시당국이 지정한 어떤 장소에서, 격주 수요일에 1센트를 지불하고 날짜가 들어 있는 스탬프를 구입하여, 그것을 통화권의 스탬프 부착 공간에 첨부한다. 이 스탬프가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유통기간은 2주간이다. 2주 후 이것을 다시 첨부하지 않으면 그 지역통화는 가치를 상실한다. 따라서 가치를 상실하기 이전에 사용하려고 하는 강한 동기가 시민들에게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시내에는 아메리카 달러보다도 스탬프 달러의 유통속도가 빠르다. 이것이 스탬프 부착 지역통화를 발행하는 목적이다. 2주 후에는 다시 1센트를 지불하고 새로운 날짜의 스탬프를 구입하여 부착한다. 이 지역통화권 1매Scrip에 26개의 부착공간이 있는 것은 1년간 수요일이 26회 있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4) I. Fisher, 1934(a), *Mastering the Crisis : With Additional Chapters on Stamp Scrip*, London ; George Allen & Unwin

_____, 1934(b), *Stable Money : A History of the Movement*, New York, Adelphi

4년 계획이므로 4년분을 한꺼번에 발행하면 $26 \times 4 = 104$ 개의 부착 공간을 인쇄한 대형지폐를 만들거나 아니면 4매가 묶여있는 통장 같은 것으로 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종이가 마모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4년간 4회 발행하는 것이 좋다. 4년 후에는 시당국은 1매의 지역 통화권당 104센트, 즉 1.04달러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

이 지역통화권의 발행 전 준비단계에서 시 당국은 민간은행[한국 농촌의 경우, 시·군 당국이 지정한 농업협동조합 등]에서 당 에 발행하려는 스탬프 달러 총액에 상당하는 아메리카 달러 총액을 용자받아 놓으면 좋다. 이는 실제상으로는 거의 필요하지 않는 조치일지도 모르지만 스탬프 달러가 아메리카 달러와의 태환성을 보증 받은 통화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주지시켜서 그들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만약, 실제로 태환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1 스탬프 달러 당 2센트를 징수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탬프 통화권을 곧바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2주에 한번 1센트를 지불하면 1스탬프 달러로 1 아메리카 달러 상당의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2센트를 지불하면서 태환을 요구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많지 않다.

4년 후 계획 종료 시, 시 당국은 대부하여 가지고 있던 자금을 모두 은행에 반납한다. 이 대부금에 관하여 은행은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빌린 사람이 신뢰성이 높은 시 당국이며 또한 시 당국의 국고나 정책자금 등 각종 자금을 그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는 공공금고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계획으로 시내의 경제활동이 활성화되면 이것은 은행업무에도 이익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시가 용자받은 원래자금에는 당 에 발행한 1 스탬프 달러당 1.04 아메리카 달러의 스탬프 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 수입의 총액을 사용하여 시내에 있는 스탬프 권의 전량을 회수한다. 이로

써 모든 계획은 완료된다. 그리하여 1 스탬프 달러 당 4센트의 이익이 시에 남게 된다.

피셔는 이 같은 내용의 편지를 통하여 스탬프 지역통화 발행의 이로운 점을 뉴헤이븐 시장에 설명했다. 또한 그는 스탬프 지역통화 발행 형태에 관하여 몇 가지 변용을 구상한 후에, 1933년 『스탬프 통화』를 출간하고 그 속에서 1년 계획안을 기술하며 52개의 부차공간이 있는 스탬프 권을 제안하고 있다. 이 통화권은 지방자치단체가 판매하는 1매 2센트의 스탬프를 매주 첨부하여 유효성을 갖도록하면, 가령 당초 1천 스탬프 달러를 발행하면 그 1년 후에는 1040 아메리카 달러의 수입이 발생한다. 그 잉여금 40 아메리카 달러는 스탬프 인쇄비와 계획 전체의 운영비로 사용하여도 좋다. 태환기금으로서의 1천 아메리카 달러는 은행에서 용자를 받으면 된다. 이 용자액은 자치체가 원금으로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으며 모두 은행에 예금하여 놓아도 좋다. 이 같은 장부상의 조치를 통하여 자치체는 은행에 이자를 지불하지 않으면서 스탬프 달러와 아메리카 달러 간의 태환성은 확보할 수 있다. 뉴헤이븐 시는 피셔의 제안대로 하지는 않았지만, 펜실바니아주 리딩시의 리딩 상공회의소가 ‘리딩시 박크스군 스탬프 지역통화’를 발행하였다(Fisher, 1934 a).

다우스웨이트R. Douthwaite(1996, P.99)에 의하면, 통화부족에 의한 전국적 불황을 지역적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이 같은 스탬프 지역통화의 발행과 물물교환(Barter거래)의 장소 설치·운영의 사가 당시 아메리카에 300개 이상의 지역에 존재했다고 한다. 그러나 1934년에 취임한 F. D. 루즈벨트 대통령은 스탬프 지역통화의 발행을 금지시켰다.


ㄹ. 지역통화 개관

i) 캐나다에서 출발하여 영연방으로 확산되고 있는 LETS[지역교환 거래 시스템Local Exchange Trading System] 또는 호주 지역의 LETS [고용, 거래 시스템Local Employment Trading System], 아메리카의 이사카시의 이사가 아워즈, 멕시코의 트라록크, 캐나다 토론토의 토론토 달러를 필두로, 국민통화와는 별도로 그것과 병행하여 유통하는 보완통화, 병행통화 또는 지역통화의 시도가 성행한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전 세계에 4천개 이상, 일본에도 160개 이상이 존재하여 국내실물시장 또는 농촌의 농산물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ii) 일본에서도 시간예탁이라는 형태로 복지 측면에서 노력(勞力)의 상호부조를 조직화한 ‘볼런티어 노력은행(勞力銀行)’의 창시는 1973년으로 아메리카의 타임 달러보다도 빠르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요구된 시간을 ‘서로 통하는 티켓(ふれあい 切符)’에 이름을 기록하며 예탁하는 단체는 그 후 일본 각지에 속출하여 광범위하게 정착하고 있다. ‘서로 통하는 티켓’을 통화로 본다면, 일본에서도 현대적인 병행통화의 일종이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다. 이를 두고 경제학자 리에테르B. Lietaer는 ‘일본 보건복지 통화(Japanese Health Care Currency)’라고 이름 붙였다.

‘서로 통하는 티켓’과 같은 시도는 고령화 사회에서의 복지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지만, 환경보전에도 사용되는 지역통화 또는 병행통화의 시도가 속출하고 있다.

세계의 외환시장에서 투기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 일본 엔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와 신용창조를 절연하기 위한 새로운 통화로서 에코 머니를 제창하기도 한다. 2001년 4월 현재, 외국환 시장에서 현/선물/스왑 거래에 관한 하루 거래량은 1조 2천억 달러(BIS, 년차 보

고서)이다. 이중 실제의 재화 거래에 실제 수요로 관계하는 것은 4% 정도이며 나머지 96%는 단기의 투기적 거래이다. WTO-FTA 시스템에서는 이 같은 휘발성이 높은 금융거래나 투기적 금융거래를 억제하고 (예, 토빈세Tobin's tax의 부과) 또는 그러한 거래로부터 국내의 실물 시장을 차단시켜야 하고 국내의 도시시장으로부터 또한 농촌의 실물 시장을 차단시켜야 한다. 지역통화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차단된 농촌 지역에서 실물의 유통거래를 활성화시켜 준다. (끝)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저자 | 차흥도 | 목사, 농촌선교훈련원